

한국오리협회 충북도지회  
**홍경표** 지회장

**‘오리사육 휴지기제’  
농가 소득 보장 전제되어야**

## [ 올인 올아웃 도입 후 소득 줄어 타격 불가피 ] HPAI, 경기침체, 코로나19 겹쳐 오리산업 불황

“3년 만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다시 찾아와 오리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산업을 위협하는 가장 요소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한국오리협회 홍경표 지회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지회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도입된 ‘오리사육 휴지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리사육휴지기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일정기간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시행된 오리휴지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예방을 위해 농가 동의를 얻어 닭이나 오리사육을 중단시키고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리농가들은 SI예방을 위해 오리휴지기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한국오리협회 충북도지회 홍경표 지회장도 같은 생각이다.

홍 지회장은 “SI가 오리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비록 SI가 발생하더라도 오리 폐사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국가적 방역 차원에서 살처분 정책에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에  
앞서 S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 동참하며 SI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오리산업은 그 만큼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홍 지회장은 특히 오리 휴지기제 도입은 개인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회장은 “SI 발생 이후 오리산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상시 출하로 1년에 12회 이상 출하가 가능했지만 올인 올아웃이 정착되면서 입식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 만큼 농가 소득은 줄어들게 됐다”며 “여기에 휴지기제 까지 도입된다면 과연 누가 오리를 키우겠냐”며 적절한 보상안에 뒷받침되지 않는 한 오리농가들이 오리 사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도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약 30%에 육박하는 오리농가의 사육이 중단돼 오리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홍 지회장은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에 앞서 S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리산업의 사육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